κόκκος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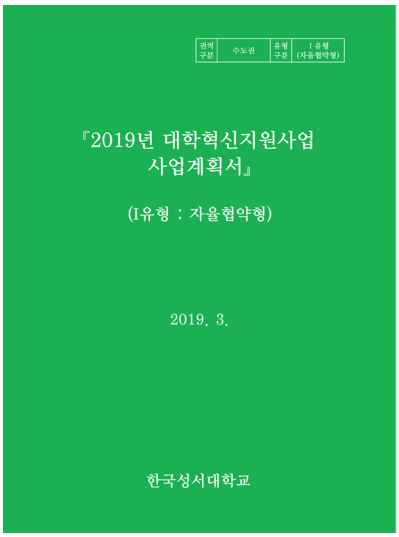
2019 APR VOL. 205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

간호학과 1 학년 학우들이 밀알관 앞 원형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화창한 4 월의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 .
(왼쪽부터 서예종 , 김규리 , 이재은 , 구성연 , 엄주현 학우)

대학혁신안 4 대 전략방향 – 우리 대학이 달라진다

일립교육을 '대학 특성화 사업' 으로 자리매김



▲ 단장 김은호

▲ 총괄위원장 조윤경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라 진행될 우리대학의 혁신안은 일립교육의 혁신을 통해 우리 대학 교육의 흐름을 규정짓도록 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 으로 선정하였다. 혁신안은 큰 틀에서 4 가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아래 12 대 추진전략, 그리고 24 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는데 각 전략과 과제가 일립교육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전략방향 1 은 **대학의 특성화로 일립교육의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개교 이래 일립교육 즉 성서에 기반 한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룰 복음전도자를 양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 혁신안도 우리의 근본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매일채플, 수요전도, FT, 밀알훈련 등 기존의 신앙훈련과 교육을 체계화시켰다. 이와 함께 현재 학우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또 개인의 신앙수준을 감안한 새로운 계획도 추가하고 있다.

전략방향 2 는 **교육학습시스템 구축**이다. 학우들의 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과 전공실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대학 교육의 본래적 목표에 현실적인 진로와 취업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융합적인 지식과 스킬(융합모듈 전공제)도 더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학기제도도 8 학기 4 년의 틀을 깨고 개개인이 지향하는 직업과 관련 현장에서의 경험을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원격수업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도 선보인다.

특히 기존 120 여개의 비교과를 수준별로 재정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책임지도교수와 NSLB 위원회의 집중 관리가 더해지는 학생에게는 최적화된 수준별 맞춤형 비교과 지원인 A. I. Navi(All Inclusive Navigating) 가 이번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략방향 3 은 **행정지원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학우들이 체감할 큰 변화는 교육 / 연구 / 행정 인프라의 첨단화인데 바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이다. 전산시스템의 기본인 메인서버 교체가 이뤄진다. 현재 사용 중인 서버는 2002 년에 설치, 이미 수명을 다한 지 오래지만 교체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수강신청도 수월해 지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진다. 또 캠퍼스의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된다. 교실 프로젝터의 해상도도 더 밝아 질 것이고, 전자탁자도 개선돼 교수들의 강의 진행도 수월해 진다.

전략방향 4 는 **교육공동체 가치구현**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학생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체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시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의 한국성서대학의 역할을 성실히 담당하는 연계 서비스도 진행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혁신안 수행을 위해 앞으로 3 년 동안 재정을 지원하는데 제 1 차년도인 올해 14 억 6 천 6 백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매 학년말 사업수행을 평가하여 20% 내외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행 실적이 나쁘면 삭감을 단행한다.

이와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대학혁신사업단』 이 조직되었으며 단장에 김은호 부총장, 총괄위원장에는 조윤경(영보) 교수가 임명되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도의 해」 1 만 명에게 복음을 제시

'한 학기 5 명에게 3 분간 4 영리로 복음전하기'

한국성서대학교의 2019 년은「전도의 해」다. 우리 대학의 비전은「한반도의 복음화」이고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일꾼 즉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설립의 이념이고 이유이다. 지난 1952 년 학교 설립 이래 학교는 이 목적을 추구해 왔고 다양한 전도훈련을 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일립교육부 신앙훈련과 (과장 이광삼) 는 올 한해 성서공동체가 함께 펼쳐갈「153 전도훈련」을 확정 발표하였다. ' 학우들을 비롯 공동체 전 구성원들이 한 학기 5 명에게 3 분간 복음전하기 ' 를 실천하여 총 10,000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주제 성구는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전도 기간은 개강일인 3 월 2 일부터 2020 년 2 월 28 일까지이다.

운영 원칙은 간결하다. 친구와 가족 및 지인 등 전도대상자 5 명을 우선 선정한다. 복음 제시는 4 영리를 핵심으로 3 분간 전하는 것이다. 실전에 앞서 학우들에게 전문 강사가 상황극을 펼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 4 영리의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수요전도반을 나가기에 앞서 지도교수가 '3 분 복음제시 ' 의 효과적인 방법을 2 인 1 조로 반복 익히도록 안내한다.

신앙훈련과는 학우들의 전도시범과 실습 과정을 40 개 전도반별로 모니터하게 된다. 평가를 거쳐 우수전도자에게는 별도의 시상도 가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각 전도반별로 3 분 복음 제시를 행한 학생이 70% 이상 되는 시점이 될 때, 전체 달성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삼 신앙훈련과장은 이번 153 전도훈련을 통해 " 성서공동체가 복음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라고 강조했다.

봄이다. 한반도 복음화를 향한 값진 씨앗이 우리 곁에서 지금 힘차게 태동하고 있다.

미니설교 지식의 시작 (잠 1:7)

임현필 목사 (교목)

'왜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나요? 왜 한국성서대학교는 매일 채플을 드리나요? 왜 대학생이 매주 전도를 해야 하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다면 본문이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식의 시작(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라는 그 출발선에서 사람의 지식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서공동체는 성경을 사랑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함께 실천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자'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들을 오히려 '미련한 자' 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와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앞에 선 여러분은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2019 년 FT, “영혼사랑의 간절함을 담아 전도”

노진준 목사 , 삶에서 타인에게 사랑과 나눔을 보여주어야

▲ 노진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2019 년도 ' 전도의 해 ' 를 맞아 성서공동체가 함께 비전과 열정을 다짐하는 FT(Faith Training) 가 11~13 일까지 2 박 3 일간 양수리수양관에서 개최됐다 . FT 는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

노진준 목사 (LA 한길교회 담임) 가 첫 날 ' 회개와 믿음 '(롬 3:21~24) 으로 말씀을 전했다 . "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 삶이다 . 주님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르게 한다 .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 됨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내자 . 영혼사랑의 간절함을 담아 전도하며 거듭나는 성서의 가족이 되어줄 것 " 을 당부했다 .

둘째 날 ' 전도자의 조건 '(눅 16:19~24) 에서는 " 사랑으로 행할 때 큰 은사를 맛보게 한다 .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재물 유무를 넘어선 생명의 가치에 방점이 있다 .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은 신앙인의 고백과 모습을 통해 예수를 품게 한다 . 온유와 두려움을 갖추고 타인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전도하는 소명의식 " 을 요구하였다 .

3 인조 보컬 ' 좋은 이웃 ' 의 간증과 찬양도 이어졌다 . 선천성 녹내장으로 실명에 처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목소리로 전하는 사명감에 감사하다며 주의 은혜가 임하길 기원하였다 . 개그우먼 김경아 집사는 친구의 기도요청으로 현재에 설 수 있었다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증거하고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

' 전도의 해 ' 주제로 펼쳐진 성서공동체의 이번 신앙훈련은 예음총학 임원진과 각 학회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 등이 더해졌다 . 찬양단의 열정적인 예배 인도와 주방 봉사를 비롯 , 이른 새벽부터 동선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발휘해 준 노고가 더해져 2 박 3 일의 여정이 빛을 볼 수 있었다 .

학부 재학생 전원과 대학원 , 평생교육원 원우 ,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형제기관의 직원들도 참여해 2019 년 ' 전도의 해 '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였다 .

하계 선교실습 몽골에서 , 7 월 1 일 ~ 6 일

김승호 교수 , 선교적 세계관 확인의 기회

다가올 여름방학기간 중 성서학과의 하계 선교실습이 김승호 교수 지도로 몽골에서 펼쳐지게 된다 . 기간은 오는 7 월 1 일 (월)~6 일 (토) 까지 엿새 간이며 몽골의 울란바트르시에 소재한 ‘꿈을주는교회 (김기국 목사 , 38 회) 에서 이뤄진다 . 현지에서 여름성경학교 방식을 중심으로 대민봉사와 문화시설방문 및 탐방학습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김승호 교수는 "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타문화권 현지에서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는 게 목적이다 . 미래 선교적 세계관을 확인하고 자질과 전략적인 안목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현지 사역중인 김기국 목사는 " 후배들의 선교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 해외 선교의 실체와 자신의 사명감을 새롭게 반문해 보는 값진 시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말했다 .

이번 선교실습에는 성서학과 학우 16 명이 참여해 선교비전을 키우고 돌아오게 된다 .

일립생활관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 주제 , 말씀과 간증

▲ 배정환 목사가 첫째 날 학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

2019 학년도 일립생활관 특별새벽기도회가 4 월 1 일 ~5 일까지 닷새간 일립관 101 호에서 진행되었다 .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을 주제로 배정환 (하늘정원교회 담임) 목사가 사흘간 말씀을 전했다 .

배 목사는 "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경험이 요구된다 . 십자가 , 부활 , 성령의 경험이다 . 머리가 아닌 경험을 통해 은혜가 임할 때 받아 들여진다 " 고 말했다 . " 십자가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 언뜻 우습게 보이나 알고 보면 웃음이 임하게 된다 . 또한 부활은 단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 열등감과 외로움 , 험난한 환경이 힘들다 . 희망으로 이끌어줄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갖자 " 고 말하였다 .

간호학과 이은주 교수와 기초교육원 한진호 교수의 간증도 이틀간 이어졌다 . 이 교수가 청소년 시절 주를 접한 스토리와 삶의 주요 고비 고비 마다 기도에 의지해 이뤄낸 감격을 간증했다 . 한 교수는 역경에 놓일 때 의지할 곳은 주님이셨다며 코이카 봉사에서 깨닫게 된 영혼구원의 소중함을 나누었다 .

부활절 선물 '만개' 프로젝트 추진

남양주참빛교회 동문 김태양 (42 회) 목사

' 부활의 기쁨을 선물로 나눈다 '

▲ 만개 프로젝트 안내용 포스터

예수 부활의 기쁨을 선물 꾸러미에 담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한 '만개' 프로젝트가 남양주참빛교회의 김태양 (성서 42 회) 목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 김 목사는 "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 이 분들에게 힘을 더해줄 선물 꾸러미 500 개를 목표로 각처에서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는 중 " 이라고 밝혔다 .

김 목사의 '만개' 프로젝트는 그리스도의 계절인 부활에 맞춰 봄꽃이 만개 (滿開) 하는 상징성과 10,000 이라는 숫자로 선물이 주는 의미를 극대화하고 싶었음을 밝혔다 . 지난 1 월부터 기획 , 홍보를 거쳐 3 월초 꾸러미가 사전 배부된 상태다 . 물품 도착 후 4 월 선별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선물 꾸러미는 부활절인 4 월 21 일에 맞춰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된다 .

이번 '만개' 프로젝트의 뜻에 동참한 전국 각처의 각 기관과 후원자들은 부활의 의미와 적합한 내용물들을 남양주참빛교회로 보내오고 있다 . 재정후원은 물론 구체적인 필요 목록을 놓고 의견이 오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용 동화책과 캐릭터 피규어 및 교육 자료와 생필품과 각종 의류 제품 등이 도착 및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참여 문의 정지오 간사 : 010-6432-9977

승강기 교체 설치 , 'OTIS' 사와 계약

여름방학기간 중 설치 완료 예정

▲ 일립관에 설치된 OTIS 사 승강기

우리대학의 복음관 및 갈멜관용 노후 승강기 교체가 전문업체인 'OTIS' 사 제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5 월 12 일부터 공장에서 기기 제작을 시작으로 철거 및 시험가동을 거쳐 7 월 말일까지 최종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학우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 현장 철거 및 설치작업은 방학기간 중 이루어지게 되며 지난 15 일 ' 이루이엔지 ' 와 계약을 체결했다.

설치될 엘리베이터 외관은 기존의 투명창 구조물을 그대로 이용한다. 승강기 내부에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며 최대 15 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2 대분 계약금액은 1 억 7 천 5 백여만 원이다.

' 이루이엔지 ' 조익서 대표는 " 성서대학 학우들이 만족하도록 성심을 다해 제작에 임하겠다 " 고 말하였다. 일립관 생활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도 'OTIS' 사 제품이다.

시설팀 이은광 대리 1 백 만원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고마움 잊지 못해”

시설팀의 이은광 대리가 승강기 교체비용에 사용해 달라며 1 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 대리는 “대외협력팀에서 근무 중 그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보내준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특히 노부부가 생활비를 아껴 보내준 오십만 원은 지금도 자신을 눈물짓게 한다. 귀한 뜻과 정성으로 세워질 소중한 승강기가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자신도 궁금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설팀 근무하기 직전까지 대외협력팀에서 관련된 후원업무를 진행해 왔었다. " 약소한 금액이라며 학교를 사랑하는 귀한 뜻이 선지동산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는 말을 덧붙이며 기부금을 전했다.

승강기 교체 365 천사 모집 현황(목표금액 1억 8천만원)

효성교회 (신치선 목사,28회)	1,000,000	김경란(동문/51회)	100,000
강혜민(대외협력팀)	1,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박만진 목사)	100,000
무 명	1,000,000	이호섭(예비군중대장)	100,000
문석현(강정원 교수 자녀)	500,000		
곽규상(시설관리팀장)	500,000	합계(2019.3.4~2019.3.30)	4,400,000
고은영(보육대학원7회)	100,000	누계(2018.12.1~2019.3.30/약정액 포함)	172,083,555

제 35 대 '예음' 총학 공식 출범

김대진 회장 , 학우들의 진정한 섬김이

▲ 강우정 총장이 김대진 총학회장에게 교기를 전달하고 있다 .

제 35 대 '예음' 총학 출범식이 지난 5 일 로고스홀에서 채플이 끝난 후 진행되었다 . 신임 총학회장 김대진 회장 (성서 3) 은 취임사를 통해 " 예음총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학을 최우선으로 지향해 나갈 것이다 . 학우들의 학업 환경이 좀 더 쾌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고 헌신해 갈 것 " 이라며 " 적극적인 협조와 뜨거운 관심 " 을 당부하였다 . 김 회장은 같이 일할 신임 임원진을 소개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전임 34 대 진예은 회장은 "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총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 구성원이 서로를 안고 보듬어 가는 성숙한 성서대학 되기를 바란다 " 며 이임 소감을 전하였다 .

강우정 총장은 " 우리대학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번 총학이 이를 일관되게 지켜 행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감동을 보여 줄 것 " 이라며 축하해 주었다 .

총학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회장단**

▲ 회장 : 김대진 (성서 4) ▲ 부회장 : 전소희 (성서 4) ▲ 총무 : 양승용 (사복 4)
▲ 회계 : 염예담 (영보 4) ▲ 서기 : 김선민 (사복 4)

◎ **대외협력부**

▲ 부장 : 안소영 (성서 3) ▲ 차장 : 김요셉 (사복 2) ▲ 차장 : 양명철 (성서 2)

◎ **언론기획부**

▲ 부장 : 조수민 (사복 4) ▲ 차장 : 최수지 (영보 3) ▲ 차장 : 박희준 (컴소 2)

◎ **열린복지부**

▲ 부장 : 김희정 (성서 4) ▲ 차장 : 이준기 (사복 2) ▲ 차장 : 현새미 (성서 2)

◎ **예배섬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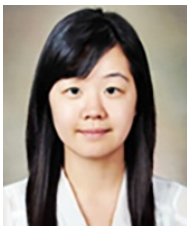
▲ 부장 : 이승용 (성서 2) ▲ 차장 : 남유진 (성서 3) ▲ 차장 : 박찬우 (성서 2)

◎ **행정지원부**

▲ 부장 : 전규환 (컴소 3) ▲ 차장 : 박보미 (사복 3) ▲ 차장 : 이제우 (사복 2)

손정은 , 김미숙 새 가족으로 합류

' 맞춤형 교수법 , 혁신 흐름 부합 ' 에 노력



▲ 손정은 연구원

▲ 김미숙 교수

손정은 연구원이 교수학습센터에 소속돼 연구 및 교수 학습방법 개발과 대학혁신사업단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손 연구원은 경희대학에서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중앙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 " 학우들의 맞춤형 교수법 개발과 학습지원 및 혁신사업에 일조하겠다 " 고 소신을 밝혔다 .

김미숙 외래 교수가 본교 혁신사업단에 소속돼 대학혁신사업의 업무를 보좌 및 수행하게 된다 . 김 교수는 본교 성서학과 (2012 년) 를 졸업하고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 우리대학이 추구해 갈 혁신 흐름이 시대와 부합되도록 열정을 쏟겠다 " 고 말하였다 .

매일의 묵상지 (성경읽기), 달라졌다

가독성 높여 , 성경흐름과 성숙함에 이르도록

교목실에서 매 주간마다 발행하고 있는 매일의 묵상지 (성경읽기) 가 ' 전도의 해 ' 를 맞아 보완되었다 . 전체적으로는 주간 묵상지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 년 1 독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 요약된 성경의 주요 스토리가 한 공간 안에서 요일별로 이어져 가독성까지 기대되고 있다 .

먼저 묵상지의 한 면 전체가 주간 성경 읽기 면으로 바뀌었다 . 일자별 분량과 핵심 내용은 요약된 스토리 중심으로 접할 수 있다 .

특히 구약은 내용 중복으로 지루하거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 접근성을 높였다 . 학기 중 성경순서를 건너뛰어 다른 성경과 이어지기도 한다 . 계시록은 방학 중 다니엘서 뒤로 게재시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도록 하였고 계시록 외에는 학기 중 다 읽도록 진도가 편성됐다 . 또한 내용 요약과 ' 질문 ' 및 ' 생각하기 ' 란을 배치시켜 성경 지식과 적용까지 이르도록 마련하였다 .

반대 페이지에는 월요일 ~ 금요일까지 설교 본문과 제목 , 찬송과 기도 , 설교자 등의 채플 순서가 요일별로 산뜻하게 정리되어 있다 . 가족과 친구 , 지역과 한반도 및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페이지 , 2019 년의 신앙 주제인 ' 전도 ' 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소개하는 코너도 시선을 끈다 . 주요 성구를 한글 , 영어 , 중국어 및 일어로 소개하였고 학사 일정도 확인 가능하다 .

유정선 교목실장은 " 한 해에 성경 한 번은 꼭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마음과 시선이 오래 집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집필 " 중이라고 밝혔다 .

2019 학년도 학부모기도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경에 담겨'

▲ 자녀의 신앙과 학업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학부모들

2019 학년도 첫 학부모기도회 (회장 장인순) 가 21 일 오후 7 시 복음관 2 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김은호 부총장이 ' 자녀들을 위한 기도제목 '(잠 2:1~10 절) 으로 말씀을 전했다 . " 우리대학은 세상과 다른 말씀교육을 최우선하는 대학이다 . ' 이 세상을 이기는 힘 ' 이 성경에 담겨있기 때문 " 이다 . 학교는 자녀를 " 말씀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최상의 인재로 성장되도록 역할에 최선 다할 것이다 . 학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성숙시켜준다 " 며 협조를 당부했다 .

올해 처음 열린 기도회에는 학부모 25 명이 참여했으며 다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함을 쏟았다 . 모든 성서 재학생의 학업 열정을 , 학교 정체성에 맞은 신앙과 인격형성 교육을 간구했다 . 특히 신편입 학우들의 학업정착을 기원하였고 성서공동체 발전과 국민 화합 등에도 간곡함을 나타냈다 .

장인순 (임주영 성서 4) 학부모기도회 회장은 " 자녀들의 학문과 신앙이 성장되도록 기도와 섬김에 힘쓰겠다 " 며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을 부탁하였다 .

학부모들은 개교기념일 (5 월 13 일) 바자회를 계획하고 물품후원 및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학부모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 시에 복음관 2 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2019–1 학기 장학금 , 4 억 2 천만 원

전년보다 35% 대폭 증액 , 268 명에게

▲ 강우정 총장이 신입생성적장학 학우에게 장학증서를 수여중이다 .

2019 학년도 1 학기 학부 장학금 총액은 4 억 2 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1 학기에 비해 1 억 1 천여만 원이 대폭 증액 (35%) 되었다 . 획기적인 증액에 대해 기획실 권경만 실장은 " 학교 예산 중 장학금은 가장 의미있는 항목이다 . 학우들의 장학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교가 지급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며 기쁜 소식이다 . 앞으로도 학우들의 장학상황이 좀 더 확대되도록 학교는 노력과 책임을 높여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한 학부 장학수여식이 6 일 로고스홀에서 채플을 마친 후 진행되었다 .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268 명이다 . 영예의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에는 문진우 (컴소 2) 학우가 기쁨을 차지하였다 . 박미혜 (성서 4) 학우 등 15 명이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의 값진 이름을 올렸으며 허진선 (사복 3) 학우를 포함 29 명이 우수성적장학으로 미소를 머금었다 . 우수 신입생에게 수여하는 신입생성적장학에는 김애라 학우 등 10 명이 선정돼 첫 학기를 상큼하게 출발했다 .

인터뷰 : 유학생회 회장 , 왕석 (성서 3) 학우

우리대학 , 유학생 6 개국 38 명 학습 중

“한국 룸메이트와 대화” 어학에 도움

우리대학에서 수업중인 유학생은 총 38 명 (대학원 4, 교환학생 2 명 포함) 이다 . 국가별로 중국 26, 캄보디아 4, 몽골 4 , 베트남 2 명 , 네팔과 세네갈 각 1 명씩이다 .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일립생활관에서 머무르며 유학생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

▲ 4 월 첫 날 일립관 101 호에서 모임을 가진 유학생 학우들

▲ 왕석 회장

◎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어학실력 부족이다 . 강의실에서 이해부족을 낳고 이것이 과제수행 부실까지 이어진다 . 자료나 시험범위가 넓게 제시될 때도 막막하다 . 최소 범위로 좁혀지길 희망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 조별 수업에서 해당 국가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 수업 향상 차원에서 한국 학우들과 과제 수행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 기숙사 생활은 ?

학교에서 자국 출신 2 명씩을 한 룸에 배치 , 소통과 학교 적응에 큰 도움을 줬다 . 숙소에서 한국 룸메이트와 주고받는 대화가 어학향상에 도움되었다며 각별한 고마움도 전했다 .

◎ 유학생으로서의 소외감은 ?

대부분 학우들의 호감과 협조의 마음에 감사하다 . 개인별로 최소 2~5 명의 한국 학우들과 우호적인 친구 관계 (일부 신입생 제외) 가 형성돼 보람을 느낀다 . 우리 모두 구별됨 없는 온전한 성서공동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힘써 배워갈 것이다 .

◎ 신앙생활은 ?

신앙의 정도는 개인별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유학생 전체가 유학 오기 전보다 성숙했다 . 낯선 타국생활이라 갈급함도 컸다 . 학년이 더할수록 주님과 교감이 깊어지는 걸 느낀다 .

◎ 고국으로 돌아가면 ?

대부분이 돌아간 후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신앙과 전공학문을 전하려 계획 중이다 . 교회개척과 목회사역의 비전을 놓고 대화하는 것을 들을 때 가슴이 뛴다 . 국가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속한자로 지경을 넓혀간다는 건 확고하다 .

◎ 유학생에게 한국성서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

우리는 신앙의 갈급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꿈과 인생을 펼치도록 기회를 줬다 . 그것도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최우선하는 하나님의 대학이어서 감사하다 . 한국성서대학은 유학생들의 인생 근원을 거듭 태어나게 해준 축복의 공간 ,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대학이다 .

유학생회 주요 행사는 밀알축제 때 홍보부스 마련과 여름방학에 갖는 MT 가 있다 .

총장 컬럼
총장 강우정

직원 선생님들에게
– 2018 부서별 업무평가를 마치고 –

매년 이맘 때 총장이 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 중에 하나는 평가입니다. 20 개 부서의 년간 업무보고서를 앞에 두고 열어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요. 열어 보니 역시 어떤 부서는 거의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라고 말 하는 것을 가끔 듣기는 하였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잘 참고 견디어 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렇게 일을 시키는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평가라니 내가 하나님인가라는 자괴감도 없지 않아요.

2018 년 우리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 중 큰 몫은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교학처가 여러 업무를 전산화 한 것도 돋보였지만 진짜 감동적인 것은 수강 신청했던 과목을 취소하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 것과 담당 교수의 사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점은 불필요한 규제, 학우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과정을 없애 준 쾌거가 아닌가 합니다. 8 억 8 천이 목표였던 기부금 모금이 12 억을 넘긴 것도, 주차장, 대관 등 수입도 목표를 넘어 3 억의 기록을 세운 것도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원의 매출이 14 억 목표에 12 억을 이룬 것도 목표 미달이긴 하지만 내심 고맙기만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보고서에는 평가에서 불리하게 보일 업무는 아예 기재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통계로 보고할 경우 과년도의 실적이나, 대상자의 숫자가 없어 잘 한 건지 못 한 건지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달성목표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자연히 성취율은 높아지게 마련이니까요.

평가의 부정적인 면은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점일 것입니다. 반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평가라는 도구는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무식한 생각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컬럼
김덕현 대리(도서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침 출근길, 신호대기 중에 버스 광고판에 이런 문구를 보았다.

"학교야 회사야? OO 대학교"

현재 대학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동시에 '아픈 곳'이기도 하다.

교양을 쌓고 '시대의 지성'으로 자라나야 할 '예비리더'들이 '구직'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 막혀 재학기간 '스펙 (specification)' 쌓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연민마저 느껴진다.

만감이 교차하며 밀알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배너광고판 속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교육부, 2018 취업률 76.8%" 서울 4 년제 대학 취업률 1 위! 전국 14 위

자랑스러운 "우리대학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성서대학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이정도 되면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세상도 흠모하는 대학"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일관된 목적으로 거침없이 달려온 지난 67 년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셨다.

마침내 2018 년 '자율개선대학 선정'이라는 숙원사업도 이뤄냈다.

대학구성원 모두는 전열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합심을 다한 열정으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교수 컬럼
조혜경 교수(영유아보육학과)

전도반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우리는 새로운 맛 집을 발견하면 기뻐한다. 이 좋은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맛보며 잠시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는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나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없다...

이번 FT 집회기간 중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공통적인 죄성(罪性)에 관한 메시지는 죄책감의 짐을 진 자들에게 자유로움을 주었다. 설사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조건의 삶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어두움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는 기쁜 소식이 된다.

수요일에 우리 전도반 학생들에게 "왜 전도를 해야 할까?" 라고 물었는데 학생들은 "전도가 왜 부담이 되는지" 에 대하여 답하였다.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들다. 할 일도 많고 바쁘다. 가족과 경제문제 등이 큰 고민이다. 내 현실이 이런데 무엇을 전한다는 말인가? 등등... 우리는 공감하였다.

그런데 놓친 것 하나가 있었다. 인간인 나 자신만 바라 본다는 점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만 바라보면 절망을 만난다. 그러나 이 죄인을 찾으시는 그 분을 바라보면 내 연약함은 그 분의 강함이 더해지고, 절망의 죄는 구원이라는 희망으로 채워진다.

기쁜 소식을 경험한 자는 인간 존재의 어두운 죄인의 삶을 알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기를 갖는다. 구원 받은 자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 온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틋한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전도지를 건네는 손길과 음성과 표정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어두운 영혼을 감싸게 된다.

외래교수 컬럼
김미숙 교수(성격 심리학)

겨울, 그리고 봄

3 월 세 번째 주간에 눈비가 두 번이나 내렸다. 겨울 가뭄에 비가 내려 반가웠지만, 눈과 우박이 겹쳐 봄꽃을 준비 중인 나무들에게는 괜찮을지 걱정 아닌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개나리꽃과 진달래꽃이 피어났고 우리 대학의 목련과 벚꽃나무도 화려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뻤다. 지난 겨울나무는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생명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다. 추운 겨울은 다음 계절인 봄을 기다리는 준비 시간이며 또 다른 성장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겨울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전도서 3 장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한다. 이 땅의 계절은 어김없이 가고 또 온다. 우리 순례자들의 여정도 이 세상의 계절과 같은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추운 겨울이 있는가 하면, 꽃피는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 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경험할 수 있다. 때문에 꽃은 결실의 시작이자 예고인 셈이다. 우리가 지금 황량한 겨울에 있더라도 그 다음 다가올 인생의 봄을 기다릴 소망과 확신만 있다면 얼음절벽 끝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꽃은 이사야서 35 장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봄을 맞이한 심령은 소생되며 새 생명과 꽃을 피워 주변을 향기로 채워간다. 꽃은 양지 바른 곳에서 그늘진 곳으로 번져간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로서 따뜻한 사랑이 담긴 복음을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그 봄이 지금 우리 곁에 가득하다. 주님은 아가서 2 장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평범한 내 삶이 가진 행복

백악관을 제 눈 속에 담은 건 새천년이 시작되기 일 년 전인 1999 년 봄과 여름 사이라고 기억합니다. 봄날이라고 하기는 열기가 더웠고 여름은 이른, 시점에 그 집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그 집에서 8 년을 살 미셸 오바마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미셸 오바마는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하층을 포함 6 층 건물로 132 개의 방과 화장실 35 개 벽난로 28 개의 거대한 규모인데 이렇게 말했다. "방은 크다. 모든 방이 크다. 욕실과 옷장마저도 내가 평생 봤던 것과 다른 차원의 크기다." 미셸의 어머니는 그 집을 박물관 같다면서 "백악관은 박물관 같아서요. 박물관에서 어떻게 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박물관 같은 곳은 단 한 사람의 안녕과 효율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에게는 우편물을 대신 읽어주고 답해 주는 직원만 50 명이 있었다."

백악관 창가 중에 남쪽 잔디 광장이 보이는 아름다운 활 모양의 발코니를 가진 트루먼 발코니는 미셸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야외 공간이라고 합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나와 잠시 앉아 진한 커피를 즐기려면 어떤 일이 있는가? 먼저 경호국에 알리면 경호국은 발코니가 시야에 들어오는 워싱톤 E 가 일부 구간 폐쇄하고 먼 곳에서 구경 온 관광객까지 쫓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발코니에 나가 잠시 앉아 있을까 싶다가도 이내 마음을 접기 일쑤이다. 그러자면 번잡한 소동이 일어났고 관광객들은 휴가를 망쳐야 했으니까. 고작 내가 밖에서 차 한 잔 마시겠다고…."

그녀의 글을 읽으며 당현천에서 집으로 갈 때 보이는 불암산의 바위가 생각났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드러난 그 바위산을 언제든 나가서 볼 수 있고 차를 한 잔 들고 걸어도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신영복 선생의 글에는 겨울철 눈 내린 교도소 운동장에 만들어진 눈사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쇠사슬 창살사이로 보이는 그 눈사람 목에 걸린 판에 쓰인 글은 "나는 걷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햇살 아래 걷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보호나 공격을 염려함이 없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누군가에는 이 걸음이 평생의 소원일 수 있고, 서서 즐기는 이 밝은 햇살이 삶의 염원일 수 있다. 다만 제가 부러워하던 문장은 이 것입니다. "침실 문 밖에는 모네의 구름이 걸려 있었고 가족 식당에는 에드가 르 드가의 청동상이 서 있었다." 아침에 눈 떠서 내 손가락의 감각으로 모네가 그린 붓질을 따라갈 수 있고 드가가 묘사한 인물의 입술을 만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청동의 차가움보다 드가의 열정에 내 손가락이 뜨거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마치면 난 또 햇살 아래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 하면서!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7

시간 _ 윤수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다
시간을 허비한 것도 죄가 된다
빠삐용이 죽음 직전까지 가서
깨달았던 것도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낭비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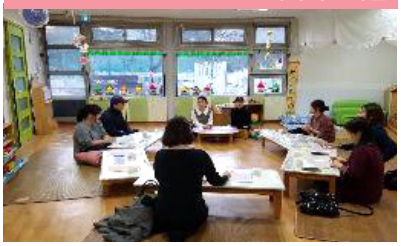
내일은 언제나 올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최선이란 말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눈을 뜨면 매일 매일이 내일이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은혜로 주어진 기적의 날들이었다.

그래서 다짐하는 한 가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 설혹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가슴 저밈 없이 떠나갈 수 있도록.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소명에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기.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내일은 언제나 올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어린이집



▲ 학부모들과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학기 학부모 모임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3 일부터 이틀간 학부모 집단면담을 가졌다. 이번 년도에는 반별 운영 사항과 특성화 프로그램 소개로 관심을 구하고 협력을 함께 모색해가는 자리이다.

영아반은 노래 활용으로 그림책 감상 프로그램을 안내하였고 학부모 관련 그림책을 살펴보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아반도 노래와 그림책 감상을 통한 관계의 증진, 유아인성교육 및 초등연계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어린이집과 가정의 협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한 학부모는 영아들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림책을 감상하는 모습으로 잘 협조하고 싶다며 마음을 표현해 주었다.

이번 집단면담이 서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밀알반 남윤주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개관 26 년을 축하하며 감사와 정성이 담겨진 맞춤떡

개관 26 주년 기념행사

지난 3 월 11 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6 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날 감사예배는 지역에서 성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일상 목사(월계복지관 운영위원)가 감사예배를 진행해 주었다. 전체직원 모두는 마음과 정성을 실어낸 특송을 불러 개관일의 감격과 새로운 다짐을 보여줬다. 전 직원들은 축하의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실천해가겠다는 소명의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개관일의 의미를 더 하기 위해 1,000 여명의 지역주민에게는 맞춤 떡을 전하며 축하를 함께 나누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선도적 사회복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 26 년 동안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례관리팀 최미정**]

꿈빛어린이집

▲ 신입 유아들이 엄마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다.

신입 유아 적응기

2019 년도 꿈빛어린이집의 신입유아는 모두 27 명이다. 만 1 세(초롱반) 5 명, 만 2 세(민들레반) 9 명, 만 3 세(나리반)5 명, 만 4 세(백합반) 7 명, 만 5 세(목련반) 1 명 등이다. 모두가 환하고 밝은 모습의 활달한 유아들이 합류했다.

이번 신입유아들의 새로운 환경적응을 돕기 위해 3 월 한 달간 연령과 발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1 주에는 엄마와 함께 교실에서 놀며 짧은 시간을 보냈고 2 주차는 점심을 함께 먹는 자리를 가졌다. 3 주에는 낮잠을 자고 귀가하도록 시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던 영유아들도 점차 안정을 보이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적응에 대견스러워 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미선 교사**]

성서대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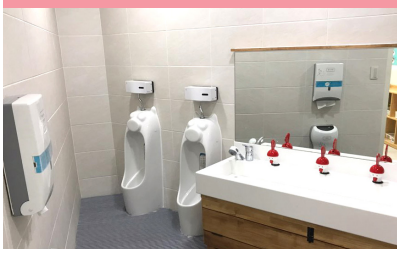
▲ 유정선 목사의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

성경에서 만나는 기도의 여인

3 월 3 일 주일 1 부 예배에서 2019 년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게 될 72 명의 직분 임명식을 가졌다. 교사들은 교회와 성도 앞에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 어린 영혼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지도해나갈 것이라며 교회와 성도 앞에서 부끄럼 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월 9 일은 MIP 기도모임에서 '성경에서 만나는 기도의 여인들' 주제로 유정선 목사(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진행의 세미나를 가졌다. 여인의 기도가 더해질 때 자녀와 가족 모두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났다며 기도의 소중함을 심어 주었다. 교회 인근에 거주중인 외부 성도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5 일에는 사랑방 개강 연합예배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 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화장실

새학기 ! 새로운 보육실과 화장실에서 행복하게 ~

지난 2 월 21 일 ~ 3 월 3 일까지 화장실 및 보육실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였다 . 일부 영유아들은 화장실 환경 따라 용변에 임하는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 사용되는 공간이 심리적으로 아늑하고 편안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쏟았다 .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된 화장실과 보육실에 우선 아이들은 마음에 든다며 박수와 감탄사를 쏟아냈다 . 보육실을 보며 "와 ~ 우리 어린이집 키즈카페 같아요 ." 라며 깨끗하고 안락해진 보육환경을 적극 환영하였다 . 학부모들도 "전체적으로 아늑해졌고 바닥이 깔끔한 화장실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 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 아이들의 쾌적한 공간이 창출 되도록 정성을 쏟아준 상계백병원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이예은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들이 부모와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

도담도담 나눔터 특강 '꼬마 몬드리안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나눔터에서는 부모와 영유아 간의 애착형성을 돕고 , 또래와 만남을 통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위해 부모 – 자녀관계증진 특강을 진행 중에 있다 .

3 월에는 12 일 (화) 총 3 회 , 109 명의 부모와 자녀가 참여한 가운데 '퍼포먼스 미술' 프로그램이 관심 속에 펼쳐졌다 . 이번 강좌에는 몬드리안 작품을 살펴보고 습자지를 활용하여 몬드리안의 작품을 따라 만들어 보았다 . 활동을 통해 알록달록한 습자지로 색감을 칠해 느끼고 , 다양한 모양을 구성해보며 예술성과 탐구성을 증진해가는 시간이 되었다 . 도담도담 나눔터에서는 매월 다양한 특강을 진행해 갈 예정이며 신청은 본 센터 홈페이지 '도담도담 나눔터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양육지원팀장 최은혜**]

상계5동어린이집

▲ 관내 보육교사들이 본 어린이집 참관 후 웃음을 짓고 있다 .

우수 어린이집 참관 대상으로 선정

지난 28 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한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 참관'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참관팀을 맞게 되었다 . 어린이집 참관에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70 명이 방문했다 . 본원을 방문한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실의 환경구성과 각 연령 교재교구를 꼼꼼히 살폈고 시설환경부분을 관심있게 체크하였다 . 이밖에도 인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 놓았다 .

참가 보육교직원들은 '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시설환경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모든 시설을 개방해 주어 감사하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 우리 교사들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임하겠다 .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볼 것이 많은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해맑은반 유정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하고 있다 .

소통과 공유의 운영위원회

늘사랑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21 일 운영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가졌다 .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와 보육교사 ,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김정원 교수를 포함한 7 명으로 구성됐다 .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어린이집 운영방향과 의견을 제안하고 , 심의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민 학부모는 " 늘사랑어린이집이 잘 성장되도록 디딤돌 역할에 충실하겠다 ." 라고 인사하였다 .

이날은 회칙개정 , 2018 년 결산 , 예산 심의 , 2019 년 행사 , 기타 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 앞으로도 발전하는 늘사랑어린이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신나는반 변윤선 교사**]

충무어린이집

▲ 인체모형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교사들

심폐소생술 교육

지난 18 일 청구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교사들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였다 . 먼저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기초 이론교육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갔다 . 응급상황에서 준비된 자세로 임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강사의 뉴스 소개로 소생술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놓치기 쉬운 여러 상황은 문답형식으로 시도해 갔다 .

이론 교육 이후 교육용 마네킹을 사용해 흉부압박을 직접 시도할 때는 잠시 긴장감도 흘렀다 . 자동제세동기 작동법까지 체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위기상황 대처법을 차례로 습득해 갔다 . 교사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대응방식의 중요성과 생명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 [**변윤영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故강덕희(텍사스대학 교수)	18,000달러(운영)	신치선(효성교회 담임목사)	110만원(운영,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	517만원(장학)	이은광(시설관리팀)	106만원(운영,장학)
강우정.강진(총장)	328만원(운영)	무 명	106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80만원(운영)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100만원(장학)
열방교회(김국명 목사)	161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용 대표)	120만원(운영)	Crawford Sue Hong(이사)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김두환 김보민 김은경 송성은 이윤정 장윤국 정은숙 최준혜 최진희
2구좌 최선경
2,5구좌 김은정 김하신 박혜빈 이예림
3구좌 이주영 정윤경 최소린
5구좌 박하은 박현주 손예진 송복순 최유빈
10구좌 강경옥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문지예 민경은 허윤민
2구좌 최지연
3구좌 김미숙 한요게벳
5구좌 김성호
10구좌 김성경 유정선 최은희
20구좌 임지영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고희자 권순길 기병문 김경남 김선경 김양순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심희정 안양희 염인형 윤운섭 윤효심 이명희 이성란 이성령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전용숙 최진석 홍경희
2구좌 김명숙 전옥순 정해숙
3구좌 안태유
4구좌 박지성
5구좌 김경식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전영준
8,3구좌 이은혜

부설기관

1구좌 김령오 문유나
5구좌 여미희
10구좌 이인경
20구좌 김승옥

수원교회

1구좌 김일섭

중앙성서교회

10구좌 한상욱

일반

1구좌 김인호 오현숙 이관헌 최인숙
2구좌 허정안 홍춘호
5구좌 차인숙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민이삭 박진기 송현미 이아람 정다운 무 명
1만원 강나경 강명희 강상미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본철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예은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경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욱 김민정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보민 김선근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정례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차욱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혜영 김화태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 정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반석 문성령 문수란 문영주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선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혜인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혜영 신호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명휘 오세천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우승연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윤솔이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정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희윤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정금숙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은숙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장현 조태환 조혜진 주민자 주영덕 지영환 진병원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민영 최서희 최선경 최수연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본 최예슬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홍진기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정지용
2만원 공진희 곽연희 구연민 국소영 권오경 김기옥 김명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복녀 김샛별 김성애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송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오채엽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윤영원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혜선 임은희 장민호 장익봉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주영 조성진 주성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한민수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고하은 공복순 권삼희 권서영 권오규 김다예 김동원 김보라 김수진 김종숙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서성숙

기부자 명단

설보경 송성은 신은숙 양연선
양혜경 유예진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예은 이은혜
이재국 이주연 이혜민 임유미
장영훈 전병민 전영이 전지혜
정선희 정슬기 정윤주 정재연
최광희 최소린 한민희 한보미
홍석화 홍예지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송인성 신은진

5만원 김세영 김연수 김종남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지혜
송복순 안선례 양원석 이부호
이지은 전은진 조연정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허정원
홍현숙

6만원 양광석 정동주

7만원 임연식

10만원 강경옥 고은영 김장교 김진만
배성준 서광진 서수경 신호정
장명헌

11만원 강순성 유선미

100만원 이례장학

106만원 무 명

110만원 신치선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김예지 윤예원 전지혜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기병문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윤옥 김은이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선동하
송기운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안소연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금란 이동기 이명희
이성령 이원혁 이혜진 임동화
전용숙 정창금 최상모 최진석
홍경희

2만원 김명숙 김현숙 박재숙 박혜숙
서성식 오옥경 이영림 정해숙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3만5천원 허진선

4만원 박지성 엄미자

5만원 김종호 김형태 이지은 이한빈
전영준 정미영 허용철

10만원 권명희 배정환 서병석 이상학
이혜린

교직원 및 가족

2,500원 고아라 임상현

5천원 김영직 박인혁 이정은

1만원 강신애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유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보미 조영채
조형섭 최혁인 허윤민
요시다고조

1만5천원 고성산 김병수 김봉재 김은실
문지예 민경은 이기훈 이호섭
정은상 조아라 하희수

2만원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동준
김세원 김장호 문행자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2만5천원 김인화 박성범 이상일 임현필
정영은 진달래

3만원 박재진 방진희 정순애 추연진
한요게벳

3만5천원 김은영 박민수 신재윤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4만5천원 김덕원

5만원 김성호 박현희 장정순

5만5천원 권순범 김덕현 김현동 신금주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최사랑

6만원 이성아

6만5천원 양희정 임환석

7만5천원 이광삼

9만5천원 권경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승호
김웅기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안현미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10만5천원 곽규상 정휘진 최육열

11만5천원 김중완 이복남 최지은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13만5천원 한진호

14만원 이강동

15만원 김량헌 김은호 김희수

20만원 김성경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안정선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최선희

100만원 Crawford Sue Hong

106만원 이은광

33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길준호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서애진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허성보

2만원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박미애 박천순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위소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임미숙 임보나
임지혜 장수진 장지영 정난경
정미옥 정혜란 지은미 최은혜
최하나 탁지혜

5만원 강진아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전은재

6만원 장나혜

10만원 이인경 정나나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20만원 김승옥

25만원 신영자

30만원 차 건

권선제일교회

2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3만원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이재순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5천원 곽규상 김온순 박선구 박진석
안숙진 이상록 임용택 정희선
최진두

1만원 강경혜 강선영 강유진 고미숙
권정화 김겸일 김배열 김봉춘
김사천 김상은 김숙재 김순자
김애숙 김영희 김윤선 김인영
김인자 김일선 김정숙 김지영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혜련 김혜옥 김혜정 김혜진
김희자 두미옥 류 강 민영빈
박경상 박영신 박용숙 박인숙
박정하 박주형 박천순 박태수
박혜영 백향원 성윤선 손진희
신양금 신인옥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윤아 오정연
유상호 윤복순 윤영원 이가은
이관영 이길우 이노선 이대영
이대우 이대한 이봉호 이선정
이선호 이영주 이영진 이은영
이정숙 이정임 이정철 이종옥
이주현 이지선 이지수 이진호
임성일 임숙정 임현필 장근문
장병호 장인순 전광심 전옥순
전하준 전혜성 정선희 조건희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최명순 최용석 최정자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1만5천원 김동준 전광심

2만원 권정숙 김덕현 김민자 박온유
변경선 신재은 오경모 유정선
이명순 이윤봉 장홍림 정명수
조성민

2만5천원 권경만 김미선 김웅기 전광심

3만원 김동수 김봉춘 김영헌 김원태
김일선 이숙영 이은실 최대만
최순남

5만원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최정권 한진호

6만원 윤복순

180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상오 정유광
홍성호

2만원 김일섭 반요셉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김옥자

5만원 김종구 한금례 권사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무 명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30만원 김광석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유순남 진경숙

2만원 정인숙 진은숙 진효숙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승애 김양권 김유벽
김유진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오미라
오현숙 원영훈 유제범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조준성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하경국 한상은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장문석 조은채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12만원 무 명

30만원 박순정

18,000달러故강덕희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
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
드/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
트코리아/동신자원/문양교회/
성복중앙교회/열방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금곡광염교
회/새샘교회/섬기는교회/신작
교회/우리교회/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도서관/다드림교회/삼일교회/
상일교회/일동성서교회/천성
교회/충은교회/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아이앤유니/가성교회/구리
중앙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
(주)/만나교회/상록교회/새중
앙교회/생명샘교회(성주)/오감
발달연구소

20만원 (주)소원기건/구리성광교회/서
부중앙교회

30만원 노아인터내셔날/염창중앙교
회/한민제일교회

100만원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120만원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161만원 열방교회(김국명 목사)

517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소계(20190221~20190320)
70,285,840

누계(20190301~20190320)
19,915,500